

이젠 '비판'이 나올 차례다

具宗書

중앙일보 논설위원

80년대들어 풍성한 황금기를 맞이한 우리 출판계가 이젠 북한서적을 原典 그대로 출판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진보적 출판문화가 올 만큼 왔다는 인상을 준다. 북한 원전이야말로 한국사회에서 허용될 마지막 금서영역이기 때문이다.

지금 시중에서 말하는 북한 원전으로는 「조선통사(상)」 「조선철학사연구」 「민족해방철학 1」 「세계와 인간」 「북한의 사상」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문헌집」 「항일무장투쟁사」 「근대조선역사」 등 10여종이다. 이 가운데는 책에 들어있는 김일성 연설문을 삭제하고 출판한 것이 있고 김일성을 '지도자'라는 말로 표현을 바꾼 것이 있지만 대부분은 용어·표현 등을 원전 그대로 출판하고 있다.

북한원전의 출판을 놓고 우리 사회엔 찬반이 엇갈려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 수준이나 분위기로 보아 출판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는 한 사회의 지식체계가 균형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지금 세계의 지식체계는 마르크스계통과 그 반대의 비마르크스계로 양분돼 있다. 그 어느 한쪽의 체계만 편식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지식에 도달할 수 없다. 공산권에선 마르크스계통만 허용되고 있으나 자유로운 서방 국가들은 모두 개방하여 읽고 있다. 그만큼 지적 능력에선 서방이 앞서고 강하다.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려 북은 마르크스체계, 남은 비마르크스체계만 허용해 왔다. 그러나 지금 이 벽이 무너져 우리 사회에서 마르크스의 「자본론」, 레닌의 「제국주의론」 등 공산주의 바이블서까지 번역 출판됐다. 이어서 북한에서 출판된 원전이 그대로 재출판되는 단계까지 왔다. 그러나 북한에선 자본주의계통 서적이거나 남한 출판물이 발간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적 편식증에 걸려 있다면, 우리는 균형있는 지식체계를 갖추는 것이 된다.

둘째는 통일논의가 개방되는 지금의 단계에서 북한의 1차자료를 우리가 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정부도 「로동신문」 등 북한의 출판물을 공개키로 했다. 북한원전의 출판은 그런 자료공개의 연장선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이해하면 된다.

세째는 민족문화의 균형있는 연구를 위해서다. 북한은 이미 40여년째 한반도의 전반에 사회주의 제도와 문화를 건설해 놓고 있다. 그것을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연구는 북한의 출판물을 통해서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참다운 민족문화는 남의 자본주의문화와 북의 사회주의 문화를 우리의 전통적 민족문화의 토대 위에 수용하여 융화시킬 때 더욱 찬란히 꽃피울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분단된 우리가 자본주의만을 편식해온 일본이나 공산주의만을 편식한 중국보다 유리한 역사경험을 갖게 된다. 중국이 대만에서 자본주의를 경험했다고 하나 그것은 대륙중국에 비해 너무나 작은 부분이기 때문에 균형있는 역사경험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원전 출판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법적 타당성의 문제다. 국가보안법이 현존하는 상태에서 북한출판물의 발간은 위법이다. 그러나 지금 보안법은 부분적으로는 사실상 사망처리됐다. 그동안 위반사항이 방치돼 왔고 실제로 당국은 보안법 개정작업을 벌이고 있다.

북한원전 출판에는 몇가지 유의점이 있다. 우선 학문적으로 연구가치가 있는 서적부터 출판해야 한다.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고 내부평화를 파괴하는 선전물은 기피돼야 한다. 다음은 자유로운 비판이 병행돼야 한다. 원전이 나오면 순서상 그에 대한 찬성과 비판이 나올 차례다. 이것까지 출판계가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참된 지식체계의 균형이다.

특집좌담	2	"정책방향에 '발상의 대전환' 필요한 때" 임인규/박석무/이철/박맹호/이기웅
제3 세계 문학	8	중남미문학의 '황금시대' 연 두 작가 9 새롭게 부상하는 아랍 현대문학/조희선
서평	10	조혜정 「한국의 여성과 남성」-朴容玉 엘레인 쇼월터 외 「페미니즘과 문학」-權澤英 11 朴惠仁 「韓國의 傳統婚禮研究」-金明子 정홍익·임현진 「現代資本主義와 스포츠」-고광현 12 韓完相 「청산이나 답습이나」-李馨 이용범 「중세 서양과학의 조선전래」-羅逸星 13 朱奉圭 「現代土地經濟論」-李光石 「나도향전집」(상·하)-李在銑
책과 저자	14	'자서전' 펴낸 철학자 朴異汶의 지적 肖像/鄭明煥
출판화제	15	독일작가 케스트너 왜 인기인가 16 러시아語 회화책 잘 팔린다
해외화제	17	"출판물 복사도 저작권료 낸다"
초점	18	불량출판물 추방에 나선 사회단체들
세미나	19	출판학,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이색잔치	19	춤으로 재현된 「이집트 구르나마을 이야기」
지금 독서중	20	이치크 벤토프 「宇宙心과 정신물리학」-공연기획가 강준택씨 황석영의 장편소설 「무기의 그늘」-거슨기획 許台尹씨 21 알베르 까뮈 「정의의 사람들」-연극배우 윤여성씨
지금 번역중	21	조르즈 바티유 「에로티즘」-대학강사 이재형씨
화제	22	출판계에 기라성 이룬 '學園人脈'
작품구상	23	장편 「분노하는 봄」/호영송
컬러화보	24	건축가 金洙씨의 書架
세계의 추천도서	26	흩어져 있는 현대사상의 '함께 보기'/李重漢
저작구상	27	「독일批評史」/金柱演
세계의 출판	28	교육개혁 논쟁 부른 「미국지성의 종식」·外 30 신간안내 38 200자 안내/화제의 책 40 청소년이 읽을 만한 책
실용도서	41	자가운전을 위한 안내서
독자서평	42	金容右/조경민 43 일간지 출판기사 색인 44 신간목록 48 데스크 칼럼/독서퀴즈